

## 부끄러움에 대하여

작가 에세이

박영덕

광주문인협회  
수석부회장·수필가

교수신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교수들의 뜻을 모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상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나 남우충수(濫竽充數) 등도 순위에 올랐으나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추천한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으뜸으로 뽑혔다. '견리망의'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원래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견리사의(見利思義)'가 처음 등장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와 정반대인 견리망의가 세상에 퍼지게 됐다.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의로움은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는 작금의 세태를 꼬집은 것이라는 데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양심의 부재를 꼬집은 것이라 하겠다.

공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 숲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호되게 꾸중하였는데 그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싸매고 도망쳤다. 얼마 후 이번에는 길 한 가운데에 대변을 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피해서 가자고 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선생님, 어찌하여 길 가운데에 똥을 싸는 저자를 피해 겁니까? 저자는 길가에 똥을 싼 놈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이에 공자가 답하기를 "저 자는 아예 양심도 없는 자다. 길가에 똥을 싸는 자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양심이라도 있으

니 가르치면 되지만 아예 길 한 가운데서 똥을 싸는 자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했다. 천하의 공자도 양심이 없는 인간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만물의 영장으로서 진화가 끝난 인간에게 부끄러움은 맹장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퇴행적 감정이며, 치

**“굳이 성인의 말씀을 들추지 않아도 부끄러움은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혹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같은 표현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혹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열한 선두 다름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없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변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권력자들은 대개 후안무치했다. 낮가죽이 두꺼워 내면의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며 권력 행사를 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몇몇 리더가 모든 정보를 거머쥐고 여론을 장악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관철해 가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

다. 이제는 쌍방향 뉴스와 인터넷과 언론 소셜미디어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과 친구와 가족의 눈에 인간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 반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의 언행은 인터넷과 언론, 소셜미디어에 의해 실시간으로 증폭되고 무한정 퍼져나가 만인의 웃음거리가 된다. 그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일수록 광속으로 증폭되는 사회적 언어로 번역되어 견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종내에는 공분을 산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 순식간에 다 증폭되어 일어난다. 그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까맣게 잊고 살던 부끄러움을 소생시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길 한 가운데에 똥을 싸는 행동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굳이 성인의 말씀을 들추지 않아도 부끄러움은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혹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같은 표현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아는 사람, 부끄러움 유전자를 세대에 걸쳐 유전 시킬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환영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견리망의(見利忘義)를 내 놓은 김병기 교수는 "불행하게도 올해는 견리망의의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견리망의가 아닌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이 전부인 세상, 절실한 마음으로 그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 새로운 광주 아트씬 세대에 대한 정의

취재수첩

도선인

취재2부 기자  
sunin.do@jnilbo.com

어느 시대든지 주요한 트렌드를 형성한 세대들이 있다. 이들 세대가 가진 공통점을 하나로 아우르는 명칭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제 말기 국어말살정책의 상황에서 우리말로 쓴 시집 청록집을 펴낸 '청록파' 시인 박목월·조지훈·박두진. 196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를 이끈 '여배우 트로이카' 남정임, 문희, 윤정희. 1970년대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음악감상실 '췌시봉'에 모인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오늘날 'MZ 아이콘', '초통령'으로 불리는 랩퍼 이영지, 아이돌 그룹 아이브, 뉴진스 등.

지역에서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주도하며 확장시킨 세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풍경을 판화로 기록한 홍성담부터 시작해 이들은 '광주·전남의 민중미술 화가'로 불리며 한 세대를 완성했다. 이처럼 민중미술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1980년대는 오늘날 광주의 아트씬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대거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휴식의 방법을 탐구하는 김자이, 현대 사회에서 버려진 오브제에 착안해 작업하는 유지원, 역사적 장소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세현,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이념에 대한 아이러니를 화폭에 옮기는 이인성,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 임용현, 추억

속 행복했던 일상을 실크스크린 판화로 옮긴 정승원, 타자의 꿈과 에너지를 빛과 색으로 빚대 페인트 추상화를 그리는 정정하, 산수화에 맛깔스러운 음식을 적절히 그려 넣어 조화를 이루는 하루.K.

이들 8인의 작가는 올해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데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의 미술 도시라 불리는 족자카르타에 모여 단체전시를 열었다. 이들뿐 아니라 최근 광주에서 청년작가라 자주 불리는 화가들에게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한국 민주화의 기념비적인 해인 1980년대 전후로 광주지역에서 태어나 한국 현대사 및 문화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발전과 변화의 중심이었던 시대에 유년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이후, 광주에서 매해 비엔날레를 경험하면서 자라왔다. 학업 이후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에는 광주시립미술관이 2010년부터 공격적으로 시작한 국제 레지던시 사업 등에 처음 참여하기 시작한 세대들이기도 하다. 이후 광주의 다양한 문화기관, 갤러리의 교류사업에 참여하면 이름을 알렸다.

그런데 이들을 달리 표현할 명칭이 없다. 광주의 문화기관, 갤러리들은 이들이 참여하는 단체 기획전시를 명명할 때 30, 40대 전후의 연령대를 고려해 '청년작가'라 얼버무린다. 이들 세대를 고려하지도 않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단어다. 빛나는 젊음의 모습으로 그 시대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새로운 세대 작가들의 발굴과 더불어 깊이있는 세대연구가 필요한 때다.

## 서울의 봄, 광주의 봄

발언대

김덕순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 안내원

못했으니 모름은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에 너무나 큰 사건. 묘지에서 5·18을 안내하는 나로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2·12에 대해 모르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꼈다.

왜 하필 지금 이 영화일까? 시대가 바뀐 것이다. 내놓고 얘기해도 거리낌 없는 시대를 만난 것이다. 올해는 고전투환 대통령 손자가 5·18묘지를 방문해 참회하기도 했다. 역사는 힘있는 소수에 좌우되지도 했지만 모이고 모인 시민의 작은 힘들에 의해 바뀌기도 했었다. 전자가 하나회의 12·12라면 후자가 80년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이고 1987년 6월 항쟁임을 말해 무엇할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크고도 위대했음을 우린 똑똑히 보았다.

영화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기에 부족했지만, 12·12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N차 관람이 많고 관람 후 분노로 증가한 심박수를 체크하는 찰원지까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때의 이슈가 아닌 영화 너머의 현대사를 뒤적여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현수막 난립 이대로 좋은가

기고

박안수

말뫼아카데미 원장  
경제학박사

거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placard) 게시대의 현수막은 광고와 홍보는 물론 새로운 정보를 시민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순기능이 분명 많을 것이다.

그 옛날 사찰 마당에서 열리는 법회 시당(幢)에 걸었던 법문도, 일제강점기 3·1절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의 깃발도, 4·19의거혁명 시에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서 사용했던 현수막은 그 가치와 역할을 충실히 하기도 남았을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서울 진입에 있는 H차동차 사육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연간 광고에 따른 효과를 값어치로 환산하면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수상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쁜 소식을 게시하여 지역민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함은 현수막 게시에 따른 순기능도 많을 것이다.

수일 전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아이가 집 앞 사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검찰 그만해라' 라는 내용이 무엇이나고 묻는데 순간 당황스럽고 궁색한 설명

만 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내에 하루에 게시되는 현수막이 무려 8000건 정도라는 보도를 보았다.

지난 추석명절에 정치인과 정치지망생 그리고 여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가시거리 좋은 모든 길목에 수없이 걸려 있었음을 보았다.

요즘은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에 스펙 문자에 가까울 정도로 연일 보내오는 문자중의 하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붓물처럼 알려온다. 일부 유권자는 출판기념회를 출마 모금회로 비추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가수과 배우 연예인의 지방공연 뱀허현수막이 가로등 깃대 온천지에 나부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신규분양에 잔여 아파트 매매에 따른 현수막은 거리에 수십 개를 동시에 게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현수막이 온천지에 뒤덮여 '현수막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어느 정당 현수막 문구가 청년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아 급기야 지도부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자동차 주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

또한 청소년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학교 앞이나 학원이 부근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정치색 짙은 현수막 게시는 서로가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말이면 구청불법광고물365정비반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5000건 이상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서로 자제하자는 내용을 검토한 듯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듯 보인다.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예전 행정당국에서 검인(檢印)자를 찍어 정식으로 인허가를 필한 현수막을 정해진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을 시민과 소비자는 더 선호할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각 정당별을 읍·면·동에 2개 이하로 게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이달 14일 공포 시행된다고 한다.

현수막 게시에 관한 내용을 관계당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정해진 조례나 규칙에 따라 게시하고 시민이나 소비자로 하여금 운행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